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 계룡산이 도읍지로 선정된 이유

2017. 08. 26

최정담, 황서영, 한지웅

지도교사 : 김재숙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탐사제목 (계룡산이 도읍지로 선정된 이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115 최정담, 1116 황서영  
2115 한지웅

### 1. 탐사의 필요성

#### 가. 탐사 동기

처음 선택했던 주제는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알아보고 이 식물들이 대략 분포하는 지역을 조사한 후, 자연 산불 위험 지역을 지정하여 산 대피로도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비 탓에, 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산을 다 들어가 보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아, 주제를 변경해야 했다. 그러던 중, 옛날 조선시대 때, 계룡산이 도읍지로 거론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라의 중심에 있지도 않은 이 산 일대가 왜 도읍지로 거론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룡산이 도읍지 후보로서 거론되었던 이유를 탐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 나. 연구 문제 선정의 이유

계룡산은 조선이 처음 생겼을 당시 도읍지 후보였다고 한다. 1년 넘게 계룡산 도읍지 계획을 실시하면서 주춧돌까지 놓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결국 최종에는 한양이 도읍지로 선택받는다. 처음에 계룡산이 도읍지로 선출된 이유와 또, 계룡산이 최종 도읍지로는 선택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 다. 문제의 접근 과정

계룡산이 당시 도읍지로 정해졌을 때 가담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우선, 계룡산 일대를 탐방한 후, 계룡산에 궁궐을 짓기 위해 주춧돌을 놓은 신도안에 가보아 궁궐터를 보았다. 그리고 무학대사가 지은 신원사를 직접 가보는 등, 계룡산이 도읍지로 정해졌을 그 당시의 역사를 탐방을 통해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 2. 탐사 과정

#### 가. 탐사 일정

##### 1) 신도안 방문

계룡산이 도읍지로 선정된 이후, 궁궐을 짓기 위해 주춧돌을 놓다가 도읍지 계획이 취소되어, 그 주춧돌들이 남아있는 신도안에 직접 방문하였다. 군부대 안에 주춧돌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 도착하여 완성 예측도를 보고 돌들을 보니 역사 속 장면을 생생히 보고 있는 것 같아 감명깊었다.



## 2) 신원사 방문

신원사 안의 중악단은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왕명으로 왕실의 기도처를 지은 집이다. 조선 초기 계룡산 천도를 주도했던 인물은 정도전과 무학대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계룡산 천도를 주도했던 무학대사의 자취를 따라가 보기 위해 신원사를 탐사하기도 했다.



#### 나. 탐사 과정

비교적 인터넷 조사가 많이 필요했던 우리 조의 주제의 여건 상, 학교에 들어와 자료 검색을 많이 했다. 신도안, 신원사, 그리고 갑사와 수통골을 탐방하고 온 후, 인터넷으로 자료를 모아 계룡산 도읍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비교적 유명한 이야기라 자료가 방대했다.

### 3. 탐구 결과

#### 가. 새로운 도읍지를 선택한 이유

1)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고려의 기득권층의 제제가 필요했다. 그 당시 고려 기득권들의 대표적인 지역은 개경이었다. 이들의 힘을 제제하기 위해 결국 천도를 결정하게 된다.

#### 나. 계룡산의 도읍지 선정

##### 1) 계룡산이 도읍지로 선정된 이유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는데, 삼국사기나 도선비기, 정감록 등에 계룡산이 수도로 설정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고 한다. 계룡산은 풍수지리적으로도 우수했는데, 금계포란형이며 비룡승천형 그리고 회룡고조형국이라 하며, 수도로서 적합하다고 봤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적으로부터 방어에 유리하고 바람을 막아주고 또, 세 개의 수로가 하나로 합쳐져 물자 운송에 유리했다고 한다.

##### 2) 계룡산이 도읍지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계룡산이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 첫 번째 원인은 지형적인 이유에 있었는데, 계룡산은 중앙으로부터 너무 남서쪽에 있어 물자를 운송받기 쉽지가 않았다. 두 번째 원인이 거의 결정적이었는데, 하순신의 풍수에 의하면 건방에 산이 있고 손방으로 물이 흘러 나가는 땅은 곧 쇠패할 땅이라고 얘기한다.

### 4. 결론 및 제언

계룡산 도읍지 계획이 거의 1년 넘게 추진되면서 주춧돌까지 놓였던 계룡산이었는데, 상소문 한 장으로 인해 계룡산 도읍지 계획은 취소되게 된다. 이 상소문은

하륜이 이성계에게 올린 상소문인데, 이 상소문의 내용은 계룡산이 도읍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이다. 하륜은 하순신의 풍수를 들먹이며, 기존의 기득권층 세력을 몰아내고 계룡산 도읍지 계획을 철회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륜이 결국 천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며 조선조의 핵심 권력가로 떠오르게 된다. 확실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륜이 풍수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도 나온다. 그 당시 시대에는 풍수지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려했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 당시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

## 5. 활동 후기

한지웅 : 계룡산 일대를 탐구하는 것이 주제인지라, 주제 설정하는 과정이 제한적이어서 힘들었다. 주제를 선택한 후에도 시간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 주제를 바꾸어야 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주제는 계룡산을 도읍지로 지정한 이유로 정했는데, 역사에 박식하지 않은 나로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하여 결국에는 계룡산이 도읍지로서 설정되었을 그 당시 배경과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내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였다.

팀원들은 2학년은 나 혼자고, 1학년 두 명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잘 알던 사이가 아니라서 조금 어색했었다. 그래도 2학년으로서 인문자연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주도했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아이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형성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주제 선정도 내가 하였는데, 주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의견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탐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하였다.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었고,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즐거웠던 유익했던 인문자연탐사였다.

## 6. 참고 문헌

무학대사의 계룡산 신도안 천도(<http://gdlsq.tistory.com/1641>)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2권  
풍수지리로 본 계룡산 천도(<http://blog.daum.net/presscho/15795933>)  
계룡시 문화재 센터  
신도안 주춧돌 앞의 관광안내판  
태조의 발자취 - 신도안 궁궐터 국가지정 문화재(명승) 지정  
신청([http://www.ngnews.kr/sub\\_read.html?uid=16311](http://www.ngnews.kr/sub_read.html?uid=16311))  
신도안 도성 추측과 개태사(<http://blog.daum.net/dwl9699/446>)  
무학대사와 조선왕조(<http://blog.naver.com/jb7220858/220810241984>)

